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따뜻한 시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 초대석 —————

최익순 강릉시의회 행정위원장

민선 7기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지원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 안전과 복지 서비스가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9명의 위원과 함께 시정 전반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행정위원회는 문화, 예술, 복지 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제도 정비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화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하고,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라든지, 재난재해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일도 행정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받으셨는데요, 의정활동 중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청솔공원 관련 조례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안,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성남동 금방골목~남문동 가구골목, 홍제동 오렌지마트~임당성당에 이르는 구간의 전선 지중화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홍제동 오렌지마트~강릉고용노동지청에 이르는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함께 중앙동 도시 재생 뉴딜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동, 홍제동, 옥천동 등 지역에 원도심이 많습니다. 원도심 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원도심은 주거환경 노후화, 인구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옥천동 도시 재생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 재생사업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 재생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구성원의 역량과 상호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진단하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민간 주도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엔 행정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하수도 시설 등 생활형 SOC 사업은 반드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도시 재생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많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지난 1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앞으로도 늘 시민 곁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현장에 귀 기울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죠”

의정 초대석 —————

정규민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민선 7기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소감과 함께 산업위원회가 하는 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산업위원회는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주민편의와 직결된 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소속위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맞춤형 정책발굴을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위원회가 다루는 강릉의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먼저,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안정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안’이 산업위원회를 통과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산업위원장으로서 보람이 큰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본 읍면지역의 미복구 수로 정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농민들은 벌써 올해 농사 걱정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도농통합지역이 많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발전도 특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농업 분야, 군 소음보상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셨는데,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사천, 연곡, 주문진 등 강릉 북부권은 심화하는 고령화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 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농어업들의 지위와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제11대 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제정 중인 군소음보상법에 정당한 피해 보상 기준이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증진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의원님께서 중점을 두신 의정활동이 있으신지요? 첫째, 우리 사회의 근간 산업인 농어업분야에도 스마트팜, 드론 방제, 친환경 스마트 양식 등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업분야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천, 주문진, 연곡 등 강릉 북부권의 특화된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 발전입니다. 강릉 북부권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해양 레저 중심으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셋째,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잘 살피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 하나가 된 마음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왔듯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극복되는 그 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

소처럼 우직하게 민생을 보듬으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올해엔 코로나 종식, 경제 활성화 등
반갑고 행복한 소식만 기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인내력이 강하고 신의가 두터우며, 근면 성실함을 상징하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께서 하얀 소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코로나를 극복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강릉시의회는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 아침을 엽니다.

22만 강릉시민 여러분!

뒤돌아보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날마다 가중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의원들의 마음도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재난재해를 배려, 존중, 양보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극복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역시 시민의 힘으로 성공리에 치러낸 저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지역발전 중심에는 힘과 열정을 함께 모은 시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강릉의 희망찬 미래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아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보



호에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세심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정책포럼 및 토론회 정기개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상을 정립하여 자치분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혹평을 받았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이 부여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의 해를 맞아, 열여덟 명 의원들 모두 호시우행(虎視牛行),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시정을 챙기고, 소처럼 우직하게 나가며 민생을 보듬고 미래를 여는데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경제 활성화 등 반갑고 기쁜 소식만 가득하여 시민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강릉시의회 의장 강희문

제288회 정례회 폐회, 2020년 의정활동 마무리



21년도 당초예산안 1조 2,213억 원 확정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 처리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지난해 12월 18일,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강희문 의장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예산 낭비가 없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전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강릉시의회는 조례안 56건, 동의안 48건 등 총 160여건의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다가오는 신축년에도 동반자인 시 집행부와 변함없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증가에 따른
긴급 의장단 회의(12. 11)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12. 15)

제288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김복자 의원 ‘각종 협약체결에 따른 정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강릉 미래 먹거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



김기영 의원 “공모사업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야”



김미랑 의원 “지역의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조사를”



윤희주 의원 “동양자수박물관 존치하면서 강릉만의 문화콘텐츠로 자생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